

석사학위논문

가정 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 남 두

2000년 8월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남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송 남 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가정에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경험하거나 목격한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부부 폭력행동의 예방과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SPSS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가정폭력실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 을 검증한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를 검증한 결과, 공격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행동 목격에서만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데,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아동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아동보다 공격적이고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들이 목격한 어떠한 가정폭력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II를 검증한 결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언어적, 공격적, 신체적 폭력행동 경험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아동들은 가정 폭력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적, 공격적, 신체적 폭력행동 목격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아동들은 가정 폭력행동을 많이 목격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III을 검증한 결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모든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에서 더 많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폭력 중에서도 특히 언어적 폭력행동경험이 공격적 행동이나 신체적 폭력행동경험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중에서는 아동들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직접으로 경험한 가정폭력이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6
2.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11
3. 가정폭력과 자아존중과의 관계	16
III. 연구 방법	19
1. 연구 대상	19
2. 조사 도구	20
3. 자료 처리	22
IV. 연구결과 및 해석	23
1. 가설 I의 검증	23
2. 가설 II의 검증	32
3. 가설 III의 검증	36
V. 요약, 결론 및 제언	41
1. 요약	41
2. 결론	44
3. 제언	45
참 고 문 헌	46
ABSTRACT	51
부 록	54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III-2> 설문지의 구성	22
<표 IV-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	24
<표 IV-2> 아동이 경험한 언어적 폭력	25
<표 IV-3> 아동이 경험한 공격적 폭력	25
<표 IV-4> 아동이 경험한 신체적 폭력	26
<표 IV-5>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	28
<표 IV-6> 아동이 목격한 언어적 폭력	29
<표 IV-7> 공격적 폭력행동 목격	30
<표 IV-8> 아동이 목격한 신체적 폭력	31
<표 IV-9> 가정폭력의 경험과 자아존중감	33
<표 IV-10>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과 자아존중감	35
<표 IV-11> 가정폭력의 경험과 목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6
<표 IV-12> 가정폭력의 경험과 목격이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7
<표 IV-13> 가정폭력의 경험과 목격이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8
<표 IV-14> 가정폭력의 경험과 목격이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9
<표 IV-15> 가정폭력의 경험과 목격이 학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4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삶의 공동체이며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아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즉 가정은 부부라는 결혼관계에서부터 부모 자녀라는 혈연관계로 발전하는 가장 밀접한 관계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간에 애정을 주고받는 심리적, 신체적 휴식의 장소로서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는 온전한 가정의 가치를 학습하지 못하여 부부간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며, 심한 경우에는 가정내의 폭력으로 발전되어 가정의 위기, 가족해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장혜순, 1995).

특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폭력은 대부분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부간의 갈등이나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이로 인해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인 문제 행동을 갖게 되는 결과를 유발한다. 또한 부모에 의해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사회폭력으로 연장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YWCA를 비롯한 몇몇 여성 단체들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부터 가정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여 신문, 잡지, TV 등의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피해와 후유증 등의 문제점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98년 7월 1일에 가정

폭력방지 특례법이 제정·시행되어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제주YWCA여성의 피난처의 통계에 의하면 1999년 1년 동안 접수된 1,462건의 상담사례중 부부문제가 총929건(63.5%)이며 이중 심각한 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전체 상담건수의 29.5%에 해당된다. 이들의 상담사례에서 드러난 피해정도는 아주 심각하다. 또한 경미한 폭력을 포함한 부부갈등이 21.1%, 남편의 외도로 인한 불화가 12.9%를 차지한다. 기타가 553건(36.5%)으로 성폭력, 혼전 성관계, 미혼모, 청소년문제, 고부갈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여성의 전화에서도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총상담건수가 2,170건으로 보고되고 있는 등 가정폭력이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가정갈등의 양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많으면 아동구타도 함께 일어나며, 부부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아동 훈육에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정환·전계순, 1993. 신영화, 1986. Gayford, 1975. Steinmetz, 1977). 이렇게 어릴 때 부모로부터 폭력이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세상을 불신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하고자 하는 일의 대부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평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내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기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기이므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의 정도는 아동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함으로써 대인

관계나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자신의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도 매우 낮아서 자신을 못되고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라고 믿게되며, 스스로를 싫어하고 경멸하며 낙심하기 쉽고, 작은 일에도 모욕을 느끼게 된다(Green, 1984). 즉,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강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아동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을 탐색하고,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원했던 성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Rosenberg, 1985).

이처럼 삶의 가치들 중에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일생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므로 아동기에 있어 바람직한 가치체계 정립과 긍정적 사고형성은 다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정폭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가정에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경험하거나 목격한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를 통해 부부 폭력행동의 예방과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가정폭력의 실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가정폭력의 실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1.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I-2.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2.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목격한 가정폭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2.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Ⅲ-3.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Ⅲ-4.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Ⅲ-5.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학교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국적인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들이 경험했거나 목격한 가정폭력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가정폭력은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실보다 축소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폭력행사자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가정폭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거나,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남편이 살해당한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폭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먼저 폭력의 개념을 살펴보면, 폭력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구타(battering), 학대(abuse), 폭행(assault), 폭력(violence)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O'Brien(1971)은 폭력은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하였으며, Steinmetz(1971)는 인가 받지 않은 비합법적인 힘의 사용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Straus(1974)도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을 폭력으로 보고, 때리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 것으로써 남에게 고통과 상해를 주는 표현적 폭력과 남을 체벌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인 구속을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Martin과 Walters(1982)는 훈련의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것을 폭력이라 하였다. Gelles와 Straus(1979)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행위와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신체적 상해를 찰싹 때리는 가벼운 고통에서 살인에 이르는 행위를 폭력이라고 보았다. 한편, 서명선(1985)은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완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 하였고, 김정옥(1987)은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폭력의 개념은 약한 행동에서부터 심한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신체적인 면 외에도 정서적, 성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재엽(1996)은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때, 이것을 가정폭력이라 하였다. 가정 폭력은 다른 폭력유형과는 다르게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교육과 훈계의 도구 혹은 갈등 해결의 한 방법으로 합법화되어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갑숙(1991)은 가정 내에서 상대방에게 완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본질적인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Mayhall과 Norgards(1983)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족간에 신체적, 정서적 상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보았는데, 이 관점은 가족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법적인 의미에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

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으로써 일회성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틀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폭력과 달리 반복적인 성격을 띠는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반복적인 폭력의 가능성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포 및 심리적 손상 등에서 일반 폭력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공격성이 강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거나 좌절을 참지 못하여 정신질환을 나타내는 등 개인의 인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이며(김정옥, 1987), 사회 내에서 남성다운 강함을 보이거나 가족이 다른 가족원을 때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이다(장혜순, 1995).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발생원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양상에 있어서도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매우 힘든 처지에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남의 가정 일에 끼어 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은 은폐된 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외부로 알려져 그 심각성이 인식되고, 외부의 개입이 시작될 때는 이미 그 피해자를 치료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을 당한 아동은 대부분 불행, 슬픔,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다. 가정폭력을 당한 아동에게 나타나는 성격적 특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학대가 일어났을 때가 어느 발달 단계였으며, 아동자신이 가진 특성 혹은 폭력자가 누구인가 등에 의해 다르게 형성된다(이주연, 1996).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중력의 장애, 호기심의 감소, 인지 손상 등을 가져오며, 이는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호기심은 아동의 자긍심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호기심이 많은 아동들은 더 자기 신뢰적이며 편견을 덜 갖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감과 소속감도 강하다. 반대로 자긍심이 낮은 아동들은 호기심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모험을 하려 하지 않으려 하며, 주변을 탐색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의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배우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합법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합법적 행위와 비합법적 행위로 나누는데, 이는 문화적 혹은 규범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자는 어떤 상황 내에서 폭력 사용이 사회적 규범에 합법적인가 아닌가 하는 합법성 여부이고, 후자는 폭력이 어떤 수단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이다(Goode, 1971). 여기서 합법적인 폭력(legitimate violence)이란 사회적 규범에 의해 요구되거나 인정되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쟁 중에 적을 죽이는 것, 일부 사회에서 죄수를 때리는 것 등의 정당 행위를 말한다. 한편 비합법적 폭력(illegitimate violence)은 순종하지 않는 아내를 때리는 행위, 전쟁상태가 아닌데도 군인을 죽이는 것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가정폭력은 타인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인 감정 표현적 폭력(Expressive violence)과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교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violence)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Gelles와 Straus(1979)는 가정폭력의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하여 그 유형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합법적-감정 표현적 폭력(legitimate-expressive violence)의 대표적

인 예로 “카타르시스”개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상적인 공격의 표현은 억누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자신의 분노를 자제하는 것보다 어린이의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형제들끼리 싸울 때 그대로 내 버려 두는 것 등이 이 형태의 폭력에 속하며, 일반가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다음으로 비합법적-감정 표현적 폭력(illegitimate-expressive violence)은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상대방에게 과도한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심각한 형태의 폭력으로 아내구타, 아동구타, 노인학대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유기, 학대, 살인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된다.

또한 합법적-수단적 폭력(legitimate-instrumental violence)은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폭력으로,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금지하는 수단으로서 자식이 잘되라고 때리는 부모의 체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보며,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뿐만 아니라 아우에 대한 말형의 체벌 또는 부정확한 배우자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비합법적-수단적 폭력(illegitimate-instrumental violence)은 폭력행위를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서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 부부간의 카타르시스적 폭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심한 고통이나 상처를 주게되면 학대로 이어지는 비합법적 폭력이 된다. 즉 초기에는 선의의 의도로 행해진 폭력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교육적이거나 교화의 목적에서 떠나 권력이나 권위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에서는 가족간 갈등 상

태시 취하는 해결책으로써 세 개의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하위척도에는 ‘의논’, ‘언어적 공격’ 그리고 ‘폭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의논 행동이란 이성적인 토의 및 논리적인 사고 등의 긍정적인 방법에 의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언어적 공격이란 언어로 혐오감, 적대감, 모욕감, 헐박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상징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결방법이다. 그리고 폭력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이상의 행위를 신체적 폭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감정적 표현폭력과 도구적 표현폭력의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한 네 가지 유형과 Straus(1979)의 가족간 갈등상태시 취하는 세 가지 유형을 종합하여 폭력 정도가 낮은 감정적 표현폭력인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으로 가기 전에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공격적 폭력행동’, 그리고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신체적 폭력’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개인이 자신은 가치로운 것, 즉 현존하는 자신은 가치롭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아거부, 자아멸시, 부정적인 자아평가를 암시한다(Rosenberg, 1979). 그러므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개인의 환경에서 주위사람들 즉, 부모, 교사, 친구 등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의 사고과정, 정서, 동기,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의 행동 또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심리적 요인으로 간주된다(박춘기, 1993).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성격이 대체로 상처받기 쉽고 적대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에서의 대처 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자식에게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부모가 실직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와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당한 경험을 가진 부모에게서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이배근, 1993 ; 김현정, 1996).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내 폭력이나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으로 인해 손상을 입으며, 이러한 성격특성을 가진 아동이 성장하여 학대부모가 된다는 점에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아는 자기와 자아로 구분하여, 자기가 의식의 중심인데 반해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마음 전체의 중심이 된다(권복순, 1996).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는 자기사랑, 자기신념, 자기존중, 자기수용, 자기만족, 자기평가, 자기평정, 자기가치, 자기감 및 자아개념이 있다(김양희, 1995).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흔히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자아개념은 판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련의 기술적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

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김현정, 1996).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평가적 측면에서 정의한 학자들 중 Coopersmith (1967)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자기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며, 개인이 자기자신을 능력 있고 의미가 있으며, 성공적이라고 믿는 가치판단이라고 하였고, Gordon (1969)은 자신의 잠재적 행동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개개인의 평가지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으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며, 한 개인이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존중감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혜자, 1991).

첫째,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갖는 전반적인 자아상을 말한다. 이는 우리의 내적 모습으로서, 자신이 어떤 특성을 어느 정도로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실제적 특성에 대해 갖는 생각과 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모습 사이의 불일치는 아동에게 합리적이고 도달가능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아동의 성격발달을 촉진시킨다. 즉, 양자 사이의 불일치는 동기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아동의 수행을 자극하고 발달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불일치의 정도가 지나치게 적을 때 침체를 가져오는 반면, 지나치게 클 때 실패와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초래하기 쉽다 (신휘숙, 1995).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아동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아동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매우 안정된 자아상을 갖게 되고 그들 스스로의 특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한다.

둘째,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가정적 상태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태도를 말한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가정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가정에서의 행동도 안정감 있게 형성되어 보다 명확하게 되고 의식화되어 인격적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개개인간은 자기 주위의 중요한 가족구성원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아구조를 이루게 된다(김병임, 1991). 특히, 가정적 자아의 형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계는 중요한 것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적대적이며 엄격하고 벌을 많이 줄수록 아동은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강박적 행동, 위축, 공격 등의 부적응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태도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셋째,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동료, 기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의미 있는 타인은 아동의 감각 불안이나, 무력함, 가치의 증가나 감소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타인들은 자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역할을 한다. 부모들은 아동의 환경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이나 거부의 경험, 타인으로부터의 승인과 거부에 대한 경험은 아동에게 그 자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하고, 그의 행동을 형성하게 한다(송인섭, 1989). 따라서 부모의 주의부족, 애정의 결핍, 엄한 체벌, 그리고 가족의 긴장이 사회적 자아개념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의 정도를 저하시킨다.

넷째, 학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하여 갖는 자아상이다. 성공적인 과제수행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키고 또 다른 과제에도 도전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동일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는 아동들도 성공경험에 노출되느냐, 실패경험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학교 자아존중감은 변화된다. 성공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고 실패는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킨다. 학대로 인해 학교 자아존중감이 감소된 아동은 타인

에게 의존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탐색할 가능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학습 능력이 쇠퇴하는데 이러한 실패가 당연하다고 믿고, 기가 죽어있거나 위축되어 있다(김현수, 1997).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대부분의 아동에게 있어서 자기 달성 능력으로 작용하며, 아동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확고히 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아동양육방식에 따라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은 부모의 내적 긴장감, 교육정도, 가정의 수입, 부모의 직업, 자녀의 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신휘숙, 1995).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강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아동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을 탐색하고,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모험을 할 수가 있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우울, 불안, 그리고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며,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원했던 성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Rosenberg, 1985).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자기의 행동양식을 결정지어 주므로, 가정폭력을 심하게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적게 받은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지지적, 온정적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 아동학대 현상이 부모 또는 아동 양육에 책임이 있는 다른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개인적 가치를 박탈하는 극단적 행위임을 미루어 볼 때,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양육자의 태도로 인해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자기의 행동양식을 결정지어주므로 사회적, 심리적 적응과 관

계가 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이며,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3. 가정폭력과 자아존중과의 관계

가정폭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으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과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부모의 자식은 성장하여 학대 부모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은 아동의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김광일(1989)은 아내구타와 더불어 아동구타가 일어나고 있으며, 아동구타를 하지 않는다 해도 아내구타를 통해 아동들은 폭력의 두려움과 유용성을 배우도록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광일(1989)의 연구를 볼 때, 폭력가정에서 자라난 아동들은 폭력을 학습하며, 이는 성장하여 폭력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traus팀(1980)은 폭력관찰과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10대였을 때 구타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Cappell과 Heiner(1990)도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자녀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배근(1995)의 연구에서는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성격이 대체로 상처받기 쉽고 적대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에서의 대처 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며, 자식

으로부터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부모가 실적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당한 경험을 가진 부모는 아동에 대한 학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황찬구(1988)의 연구에서는 아동구타와 자아존중감은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타의 정도가 심한 아동일수록, 그리고 잦은 구타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김정준(1986)의 저소득층 유아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가정폭력을 당한 유아들은 대체로 행동이 산만하고 공격적이며, 파괴적·반항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관심을 끌려고 하며,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복순(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으며, 정서적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현정(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신체적 학대를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치영(1988)은 개인발달에 있어서 폭력적인 경험이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인 폭력관찰의 영향이 개인의 공격성을 사회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복희(1995)는 아동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은 다르므로,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성장발달과 사회적 능력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김광일·고복자(1987)의 연구에서도 부모에게서 구타를 경험한 아동이 구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친구와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특징을 보였으며, 두통, 복통, 불면증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부모의 학대를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폭력적일수록 아동은 공격적이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가정에서 자라난 아동들은 폭력을 학습하며, 이들은 성장해서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아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부모의 폭력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동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과 조사도구, 자료처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770부를 배부하여 765부 회수하였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750부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별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인 변인은 고려치 않았으므로 연구대상자들의 경제적인 측면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산층 가정의 자녀가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Ⅲ-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376	50.1
	여	374	49.9
연 령	10세 이하	157	20.9
	11세	215	28.7
	12세	378	50.4
전 체		750	100.0

우선 성별로는 남자 50.1%, 여자 49.9%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 별로는 12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세 28.7%, 10세 이하 20.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0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수정을 거쳐 2000년 3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에게는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면접 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수집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자료만을 선별하여 연구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376부와 374부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표 I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가정폭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의 폭력정도를 노치영(1988)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TS는 가족간 갈등상태시 취하는 해결책인 행동지표들로 3개의 하위영역 즉, 언어적 폭력행동, 공격적 폭력행동, 그리고 신체적 폭력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내용은 언어적 폭력행동 4문항, 공격적 폭력행동 4문항, 신체적 폭력행동 6문항으로 1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 문항은 아동 자신이 경험한 폭력행동과 부모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동으로 분류하여 가정폭력을 측정하였으며,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아주 드물게', '가끔', '자주'의 네 가지

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 문항마다 1점부터 4점을 부여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내에서의 폭력의 정도가 심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폭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검사를 김양희(1995)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검사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등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자아의 일반적 자아상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10문항, 가정생활에서의 자기의 가치를 의미하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8문항, 타인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7문항, 교사나 동급생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학교 자아존중감 7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자아존중감은 4개의 영역의 전체적인 점수를 의미하며, 각 문항의 정도를 '나와 비슷하지 않다', '보통이다', '나와 비슷하다'의 3개의 범주에 응답하도록 하고, 각 문항당 1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했으며, 부정적 문항의 경우는 1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형제 자매 수,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 주거형태 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고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표 III-2>와 같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가정폭력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모두 Cronbach's α 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문항번호	ALPHA
조사대상자의 특성	개인특성(성별, 연령, 형제·자매수)	1, 2, 3	-
	가족특성(부모연령, 학력, 직업등)	4, 5, 6, 7, 8	-
가정폭력 (아동이 경험한 폭력)	언어적 폭력행동	9, 10, 11, 12	.65
	공격적 폭력행동	15, 17, 18, 19	.63
	신체적 폭력행동	13, 14, 16, 20, 21, 22	.77
가정폭력 (아동이 목격한폭력)	언어적 폭력행동	23, 24, 25, 26	.60
	공격적 폭력행동	29, 31, 32, 33	.71
	신체적 폭력행동	27, 28, 30, 34, 35, 36	.84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아존중감	38, 41, 48, 50, 56, 59, 61, 62, 64, 68	.62
	가정적 자아존중감	37, 42, 47, 52, 54, 55, 57, 60	.61
	사회적 자아존중감	39, 44, 49, 51, 53, 65, 67	.62
	학교 자아존중감	40, 43, 45, 46, 58, 63, 66	.60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 정도에 따라 가정폭력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 및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유의도 수준은 $p < .05$, $p < .01$ 두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설 I, 가설 II, 가설 III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 I의 검증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가정폭력의 실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I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1>에서 <표 IV-8>까지 나타난 바와 같다.

1) 가설 I-1의 검증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I-1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가정폭력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또한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은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I-1을 검증한 결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성별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I-1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표 IV-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

구 분			N	Mean	SD	t(F)
아 동	성 별	남	376	1.39	0.65	8.81**
		여	374	1.27	0.53	
부모의 학 력	아버지 학력수준	중졸 이하	124	1.36	0.60	(0.29)
		고 졸	318	1.33	0.57	
		대졸 이상	308	1.32	0.62	
	어머니 학력수준	중졸 이하	142	1.35	0.58	(0.15)
		고 졸	408	1.33	0.60	
		대졸 이상	200	1.31	0.60	
전 체			750	1.33	0.59	

** p<.01

또한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의 하위영역, 즉 언어적 폭력행동, 공격적 폭력행동, 신체적 폭력행동에 있어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에서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아동이 경험한 언어적 폭력행동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언어적 폭력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로는 평균이 남자 아동 1.70, 여자 아동 1.49로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언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그러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아동이 경험한 언어적 폭력행동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경험한 언어적 폭력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아동이 경험한 언어적 폭력

구 분			N	Mean	SD	t(F)
아 동	성 별	남	376	1.70	1.18	7.29**
		여	374	1.49	0.93	
부모의 학 력	아버지 학력수준	중졸 이하	124	1.64	1.15	(0.16)
		고 졸	318	1.58	0.96	
		대졸 이상	308	1.58	1.15	
	어머니 학력수준	중졸 이하	142	1.64	1.11	(0.21)
		고 졸	408	1.58	1.04	
		대졸 이상	200	1.58	1.10	
전 체			750	1.59	1.07	

** p<.01

(2) 아동이 경험한 공격적 폭력행동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공격적 폭력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3> 아동이 경험한 공격적 폭력

구 분			N	Mean	SD	t(F)
아 동	성 별	남	376	1.28	0.59	3.85
		여	374	1.20	0.50	
부모의 학 력	아버지 학력수준	중졸 이하	124	1.28	0.55	(0.53)
		고 졸	318	1.24	0.58	
		대졸 이상	308	1.22	0.52	
	어머니 학력수준	중졸 이하	142	1.24	0.52	(1.50)
		고 졸	408	1.26	0.60	
		대졸 이상	200	1.18	0.45	
전 체			750	1.24	0.55	

먼저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공격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보면,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아동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 어머니인 아동보다 공격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아동이 경험한 공격적 폭력행동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이 경험한 신체적 폭력행동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신체적 폭력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4> 아동이 경험한 신체적 폭력

구 분			N	Mean	SD	t(F)
아 동	성 별	남	376	1.21	0.52	8.61**
		여	374	1.11	0.36	
부 모 의 학 력	아 버 지 학 력 수 준	중 졸 이 하	124	1.18	0.40	(0.27)
		고 졸	318	1.17	0.48	
		대 졸 이 상	308	1.15	0.44	
	어 머 니 학 력 수 준	중 졸 이 하	142	1.15	0.36	(0.13)
		고 졸	408	1.16	0.43	
		대 졸 이 상	200	1.18	0.54	
전 체			750	1.16	0.45	

** p<.01

먼저,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따라서 신체적 폭력행동은 여자 아동보다 남자 아동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 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더 온순하고 어른의 말에 순종적이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를 남자 아동이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김혜영(1990), 서은주(1993), 김현정(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의 학력 수준별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아동들은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들은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나 부모의 학력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아동이 경험한 신체적 폭력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I-1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1>에서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하위영역별로는 언어적 폭력행동 경험, 신체적 폭력행동 경험은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I-1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2) 가설 I-2의 검증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2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

구 분			N	Mean	SD	t(F)
아 동	성 별	남	376	1.30	0.56	2.40
		여	374	1.25	0.45	
부모의 학 력	아버지 학력수준	중졸 이하	124	1.27	0.46	(0.69)
		고 졸	318	1.30	0.54	
		대졸 이상	308	1.25	0.49	
	어머니 학력수준	중졸 이하	142	1.23	0.67	(2.92)
		고 졸	408	1.32	0.57	
		대졸 이상	200	1.22	0.45	
전 체			750	1.28	0.51	

먼저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가정폭력을 더 많이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학력수준별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아동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아동보다 가정폭력을 더 많이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를 검증한 결과,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는 기각되었다.

또한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의 하위영역, 즉 언어적 폭력행동, 공격적 폭력행동, 신체적 폭력행동에 있어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6>에서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아동이 목격한 언어적 폭력행동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언어적 폭력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6> 아동이 목격한 언어적 폭력

구 분			N	Mean	SD	t(F)
아 동	성 별	남	376	1.51	0.92	0.42
		여	374	1.47	0.82	
부 모 의 학 력	아 버 지 학 력 수 준	중 졸 이하	124	1.50	0.99	(0.04)
		고 졸	318	1.49	0.84	
		대 졸 이상	308	1.48	0.86	
	어 머 니 학 력 수 준	중 졸 이하	142	1.46	0.82	(0.74)
		고 졸	408	1.52	0.90	
		대 졸 이상	200	1.44	0.85	
전 체			750	1.49	0.87	

먼저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평균이 남자 아동 1.51, 여자 아동 1.47로,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가정에서 언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보면,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은 언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아동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아동보다 언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언어적 폭력행동은 차이가 없었다.

(2) 아동이 목격한 공격적 폭력행동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공격적 폭력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7> 공격적 폭력행동 목격

구 분			N	Mean	SD	t(F)
아 동	성 별	남	376	1.28	0.69	3.44
		여	374	1.20	0.52	
부 모 의 학 력	아 버 지 학 력 수 준	중 졸 이 하	124	1.21	0.45	(1.80)
		고 졸	318	1.29	0.69	
		대 졸 이 상	308	1.20	0.57	
	어 머 니 학 력 수 준	중 졸 이 하	142	1.17	0.41	(3.78)*
		고 졸	408	1.29	0.71	
		대 졸 이 상	200	1.17	0.51	
전 체			750	1.24	0.61	

* p<.05

먼저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가정에서 공격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목격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수준별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아동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아동보다 공격적 폭력 행동을 더 많이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아동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아동보다 공격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목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5).

(3) 아동이 목격한 신체적 폭력행동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신체적 폭력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8> 아동이 목격한 신체적 폭력

구 분			N	Mean	SD	t(F)
아 동	성 별	남	376	1.13	0.45	3.11
		여	374	1.08	0.28	
부 모 의 학 력	아 버 지 학 력 수 준	중 졸 이 하	124	1.10	0.32	(0.85)
		고 졸	318	1.12	0.39	
		대 졸 이 상	308	1.08	0.38	
	어 머 니 학 력 수 준	중 졸 이 하	142	1.07	0.18	(3.19)*
		고 졸	408	1.13	0.47	
		대 졸 이 상	200	1.07	0.23	
전 체			750	1.10	0.37	

* p<.05

먼저 성별로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목격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보면,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아동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아동보다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아동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아동보다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목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지금까지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라는 가설 I-2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5>에서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들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하위 영역에 있어서 아동이 목격한 공격적 폭력행동은 어머니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I-2는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설 I의 검증결과를 보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가정폭력의 실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I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2. 가설 II의 검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9>와 <표 IV-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가설 II-1 검증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1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먼저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전체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가정폭력의 하위영역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행동 경험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p < .01$). 따라서 아동들은 가정에서 언어적 폭력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V-9> 가정폭력의 경험과 자아존중감

구 분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
언어적 폭력행동 경험	-0.2210**	-0.2647**	-0.1457**	-0.1624**	-0.2629**
공격적 폭력행동 경험	-0.1920**	-0.2638**	-0.1199**	-0.1402**	-0.2373**
신체적 폭력행동 경험	-0.1692**	-0.2470**	-0.1370**	-0.1363**	-0.2287**
가정폭력 경험	-0.2247**	-0.3027**	-0.1591**	-0.1752**	-0.2888**

** $p < .01$

다음으로 가정에서 공격적 폭력행동 경험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한편 김완선(1996)의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받고 있으며, Straus(1991)연구에서도 역시 부모에 의한 언어적 공격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문제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윤충원(1993)의 연구에서도 언어적 학대는 양육자가 고의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욕설이라 말할 수 있는 표현들로서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어 아동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가치감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공격적 폭력행동을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폭력행동 경험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따라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많이 받은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되며, 성격특성이 파괴적·반항적이고 과도한 불안증세를 보인다는 곽영숙, 홍강의(198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1을 검증한 결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1은 수용되었다.

2) 가설 II-2 검증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2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0>와 같다.

먼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과 전체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가정폭력의 하위영역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행동 목적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따라서 아동들은 가정에서 언어적 폭력행동을 많이 목격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격적 폭력행동의 목적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따라서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격적 폭력 행동을 많이 목격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과 자아존중감

구 분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
언어적 폭력행동 목격	-0.1925**	-0.2332**	-0.0598	-0.1233**	-0.2015**
공격적 폭력행동 목격	-0.1418**	-0.2552**	-0.0526	-0.1378**	-0.1953**
신체적 폭력행동 목격	-0.1332**	-0.1897**	-0.0671*	-0.0725*	-0.1532**
가정폭력 목격	-0.2347**	-0.3027**	-0.1591**	-0.1752**	-0.2888**

* $p < .05$, ** $p < .01$



신체적 폭력행동 목격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들은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 행동을 많이 목격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들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2를 검증한 결과, 아동이 목격한 가정 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들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2는 수용되었다. 가설 II 검증결과, <표 IV-9>와 <표 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목격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는 수용되었다.

3. 가설 Ⅲ의 검증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목격한 가정폭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Ⅲ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11>에서<표 IV-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가설 Ⅲ-1 검증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Ⅲ-1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1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1> 가정폭력의 경험과 목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자아존중감		
	b	β	t
가정폭력 경험	-0.1039	-0.2308	-5.621**
가정폭력 목격	-0.0578	-0.1100	-2.680**
R ²	0.0921		
F	37.8568**		

** p<.0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목격한 가정폭력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목격할수록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그런데,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beta = -.2308$)이 목격한 가정폭력($\beta = -.1100$)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I-1은 수용되었다.

2) 가설 III-2 검증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I-2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2> 가정폭력의 경험과 목격이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일반적 자아존중감		
	b	β	t
가정폭력 경험	-0.1037	-0.1810	-4.354**
가정폭력 목격	-0.0703	-0.1049	-2.522*
R ²	0.0637		
F	25.4068**		

* p<.05, ** p<.0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목격한 가정폭력은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아동이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목격할수록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그런데,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beta = -.1810$)이 목격한 가정폭력($\beta = -.1049$)보다 아동의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아동의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I-2는 수용되었다.

3) 가설 III-3 검증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I-3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가정폭력의 경험과 목격이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가정적 자아존중감		
	b	β	t
가정폭력 경험	-0.1295	-0.2127	-5.240**
가정폭력 목격	-0.1213	-0.1708	-4.207**
R ²	0.1127		
F	47.3743**		

** p<.0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목격한 가정폭력은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목격할수록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그런데,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beta = -.2127$)이 목격한 가정폭력($\beta = -.1708$)보다 아동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아동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I-3은 수용되었다.

4) 가설 III-4 검증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I-4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4> 가정폭력의 경험과 목격이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사회적 자아존중감		
	b	β	t
가정폭력 경험	-0.0975	-0.1643	-3.873**
가정폭력 목격	0.0098	0.0141	0.333
R ²	0.0248		
F	9.4861**		

** p<.0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아동이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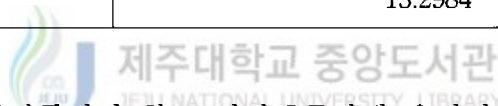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I-4는 수용되었다.

5) 가설 III-5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학교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I-5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5> 가정폭력의 경험과 목격이 학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학교 자아존중감		
	b	β	t
가정폭력 경험	-0.0829	-0.1374	-3.255**
가정폭력 목격	-0.0507	-0.0717	-1.699
R ²	0.0343		
F	13.2984***		



** p<.0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학교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아동이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학교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이상과 같이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아동의 학교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학교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I-5는 수용되었다.

가설 III을 검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IV-11>과 <표 IV-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II은 수용되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가정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1. 요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가정폭력의 방지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가정폭력의 실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1.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I-2.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2.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목격한 가정폭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1.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자아

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2.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3.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4.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5.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학교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SPSS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가정폭력 실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 을 검증한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I-1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를 검증한 결과, 공격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행동 목적은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아동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아동보다 공격적이고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들이 목격한 어떠한 가정폭력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이 목격한 가정 폭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I-2는 부분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II를 검증한 결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언어적, 공격적, 신체적 폭력행동 경험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폭력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1은 수용되었다.

또한 언어적, 공격적, 신체적 폭력행동 목적은 전체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아동들은 가정 폭력행동을 많이 목격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목격한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2는 수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III을 검증한 결과,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모든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에서 더 많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I은 모두 수용되었다.

2.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정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접적인 폭력보다는 직접적인 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목격한 가정폭력은 모두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 중에서는 언어적 폭력행동 경험이 공격적 행동이나 신체적 폭력행동 경험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공격적 폭력행동이나 신체적 폭력행동뿐 아니라 아동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인간다운 존중이 결여되었을 때에도 아동들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정폭력 중에서는 아동들이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직접 경험한 가정폭력이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 역시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이나 아동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이 부모의 학력이나 성별과는 거의 상관없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모든 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부모교육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적 측면에서 아동학대 상황의 관리 또는 제거를 위한 대책, 우울을 다루는 학습, 스트레스 대처방법, 충동적 행동과 분노의 효과적 취급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부모교실을 통해 부모의 역할 및 부부관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과 발달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사회교육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아동과 여성들을 위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상습적이고 흉기를 이용한 폭력의 가해자는 즉시 처벌받는 제도가 있듯이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복순(1996). 자녀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광일(1989). 아동구타 또 하나의 숨겨진 범죄, 탐구당.
- 김광일·고복자(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발생을 : 국민학교 아동의 경우,” 「정신건강 연구」, 제6집, 66-81.
- 김양희(1995). 가출아동의 신체적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옥(1987).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재엽(1996).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개입방안 연구 : 임상치료 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동광」, 93, 19-35.
- _____ (1997). “부부권력 주도와 갈등 그리고 폭력,” 「한국가족복지학」, 1, 41-65.
- _____ (1998). “스트레스 및 알콜이 아내 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도시빈곤가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03-118.
- 김정준(1987).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치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수(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 공격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현정(1996). 자녀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김호권(1979). 자아개념의 변화에 관한 의사 종단적 연구, 한국행동과학연구원.

노치영(1992). “가정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제4호.

_____ (199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정환·전계순(1993). “아동의 가정내 구타 발생을 및 관련 요인,” 「예방의학회지」, 제24권, 제2호.

박춘기(1983). A study on separation theorems for convex sets and convex functions,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대선(1994). “가정환경 변인과 행동장애 발생에 관한 연구,” 「신구전문대학 논문집」, 제13집.

서명선(1998).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사회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양서원.

신영화(1986). 한국아동의 사회, 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희숙(1995). 아동심리학, 제2판, 박영사.

연진연(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미정(1986).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배근(1993). “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 한국아동학대예방 대구직할시협회, 제3회 세미나 자료집.

이영근·조영순(1991). 아동의 세계, 양성원.

이영숙(1984).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군산대학교 논문집」, 제7집.

이주연(1996). 아동학대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과 인성특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효재(1984). 가족과 사회, 경문사.

장도현(1984).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장혜순(1995). 가정폭력이 자녀의 폭력성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조복희 외(1995). 인간발달 발달심리 접근, 교문사.

한혜자(199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황찬구(1988). 아동구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Bandura, A.(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York : Prentice-Hall.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Freeman and Company.
- _____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Inc.
- _____ (1975).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Freeman.
- Gelles, R. J. and Straus, M. A.(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W. Burr, R. Hill, Reiss(eds.), The Free Press.
- Gelles, R. J.(1984). "An Exchang/Social Control Theory", *The Dark Side of Families*, 151-165.
- Goode(1971). "Forces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624-636.
- Green, A. H.(1985). "Child maltreatment : Recent studies and future direction," *J. Am, Acad, Child Psychitary*, 23.
- Martin, M. J. & Walters, J.(1982). "Familial correlates of selected typ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4, 267-276.

- Mayhall, P. D. & Norgard, K. E.(1983). "Child Abuse and neglect : Sharing Responsibility", *New York : John Willey and Sons.*
- Newman, B. M. & Newman, P. R.(1975). *Development Through Life*, The Dorsey Press.
- O'Brien(1971). "Violence in divorce-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92-698.
- Rosenberg, M. D.(1985). "Primary Prevention of child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 Steinmetz(1979). "Occupation and physical punishment ; a response to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64-666.
- Straus, M. A.(1974).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1, 75-78.

ABSTRACT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 Self-Esteem*

Song, Nam-doo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rve as a basis for preventing a married couple's violent behavior or child abuse, by finding out how children's self-esteem was affected by violence that was done to themselves or seen by them at home.

For attaining the purpose, the elementary school fifth- or sixth-grade students who were living in Cheju Island were surveyed regarding the reality of family violence and self-estee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I that there would be a difference in family violence according to child gender and paren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00. 8.

education level, the gender of the students investigated made a difference to family violence experienced by them. The boy children had more experienced family violence than the girl children. But parent's education level produced no difference.

Next, as a result of examining Hypothesis I-2 that there would be a difference in family violence witnessed by child according to child gender and parent education level, mother's education level yielded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ir witnessing aggressive or physical violence. The children whose mother was a high school graduate were more aggressive and observed more physical violences than those whose mother just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or graduated from university or higher-grade school. But their gender didn't generat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ir witnessing family violence in every area.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II, family violence experienced by the children gave negative impact on their self-esteem. The experience of verbal, aggressive or physical viol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al relationship with general, family, social, school and total self-esteem. This meant that mor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led to poorer self-esteem.

Besides, witnessing verbal, aggressive or physical viol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general, family, social, school and total self-esteem. This implied that more witnessing of family violence resulted in lowering self-esteem.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Hypothesis III, family violence experienced by the children exercised more negative influence on every

subarea of self-esteem, including general, family, social and school self-esteem, than family violence witnessed by them.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family violenc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hildren's self-esteem. Especially, their self-esteem was more affected by the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than that of aggressive or physical violence. In addition, family violence experienced directly by them exerted more influence on their self-esteem than that witnessed by them.



4. 부모님의 나이는? ① 아버지 ()세 ② 어머니 ()세

5. 부모님의 직업은? 아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① 아버지 직업() ② 어머니 직업()

<보기>

- ① 단순노무직: 식당종업원, 행상, 수위, 청소부, 파출부 등
- ② 고용인, 판매, 기술직: 점원, 외판원, 이·미용사, 요리사 등
- ③ 자영 상인제조업자: 세탁소, 양복점, 개인택시 기사, 가게 주인 등
- ④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군인, 계장 이하 회사원, 국민학교 교사
- ⑤ 전문직: 교수, 약사, 의사, 회계사, 변호사, 과학자, 3급 이상 공무원, 예술가 등
- ⑥ 가정주부
- ⑦ 무직

6.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① 아버지 교육수준() ② 어머니 교육수준()

<보기>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7.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의 입니까?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③ 단독주택 ④ 기타()

8. 지금 우리집의 생활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가난하다 ② 가난하다 ③ 보통이다
④ 풍족하다 ⑤ 매우 풍족하다

■ 다음은 여러분 자신이 가정에서 경험한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	아주드물게	가끔	자주
9	조용히 의논하기보다는 화를 냈다.				
10	모욕을 주거나 욕을 했다.				
11	뿌루퐁해 있거나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피한다.				
12	부모로서 하지 못할 말을 하셨다.				
13	담배 불로 지지거나 물건으로 때렸다.				
14	온몸을 마구 두들겨 맞았다.				
15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졌다.				
16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다.				
17	떠밀거나 움켜잡았다.				
18	괴롭히기 위해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동했다.				
19	물건을 던지거나 혹은 때리려고 위협했다.				
20	발에 차이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었다.				
21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쳤다.				
22	흉기(칼, 송곳, 도끼 등)로 위협하거나 사용했다.				

■ 다음 지난 부모님이 가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부모님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	아주 드물게	가끔	자주
23	서로 조용히 의논하기보다는 화를 냈다.				
24	서로 모욕을 주거나 욕을 했다.				
25	서로 뿌루퉁해 있거나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피한다.				
26	서로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셨다.				
27	담배 불로 지지거나 물건으로 때렸다.				
28	온몸을 마구 두들겨 맞았다.				
29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졌다.				
30	손으로 뺨을 때렸다.				
31	떠밀거나 움켜잡았다.				
32	괴롭히기 위해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동했다.				
33	물건을 던지거나 혹은 때리려고 위협했다.				
34	발에 차이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었다.				
35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쳤다.				
36	흉기(칼, 송곳, 도끼 등)로 위협하거나 사용했다.				

■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으시고 자기가 어떤지 잘 생각해 보고 한가지 답을 골라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나와 비슷하지 않다	보통이다	나와 비슷하다
37	부모님은 나에 대해 너무 큰 기대 를 가지고 계신다.			
38	할 수 있다면 나 자신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			
39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속스럽다.			
40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 생활 이 원만하지 못하다.			
41	나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다.			
42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43	나는 학교공부를 자랑으로 내세운 다.			
44	나는 내 또래 친구에게 인기가 있 다.			
45	나는 학교에서 화날 때가 많다.			
46	수업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을 좋아한다.			
47	집에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이 없다.			
48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다.			
49	친구들이 주로 내 의견을 따른다.			
50	내 일들은 잘 풀리지 않는다.			
51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망 설이지 않고 그것을 말한다.			
52	나는 집에서 화를 잘 낸다.			

	문 항	나와 비슷하지 않다	보통이다	나와 비슷하다
53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54	집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다.			
55	나의 부모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56	나는 꾸중을 들으면 금방 화가 난다.			
57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기분을 맞춰 주신다.			
58	친구들이 나를 놀린다.			
59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는다.			
60	언제나 부모님이 나를 야단치시는 것 같이 느낀다.			
61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많다.			
62	나는 결심을 하면 꼭 지키려고 한다.			
63	수업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을 좋아한다.			
64	나 자신이 종종 부끄럽다.			
65	나를 괴롭히는 일은 별로 없다.			
66	나는 때때로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있다.			
67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68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			